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탁월한 사상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향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세계진보적인사들은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한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회세의 정치가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슬로벤스코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진보적인류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인 광명성절

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그이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조선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한평생을 바치시었다. 세계의 평화애호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회세의 위인으로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은 지니시고 인민의 복리증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수호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가장 절충한 위인이시며 김정일시대는 위대한

승리와 창조적 시대이다. 민주공고공산당 총비서와 민주공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인민을 주체위업의 한길로 향도하시었다고 하면서 그이인 인류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준 저명한 정치가, 사상리론가이시라고 격찬하였다. 나이지리아인민진보당 전국 위원장은 세계정치사에 류례없는 선군정치로 조선인민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의 불멸의 업적을 진보적인류는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영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발전공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주체조건을 변형하는 사회주의나라로 일떠세우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의 위대한 귀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칭송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을 강그리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 선전하고있다. 에파도르 김정일도서관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었다. 소박하고 소탈하며 인민적인 품성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자신을 언제나 인민의 아들로 여기시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 하시었다. 또한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쉬임없는 헌신적노력을 기울이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방글라데시신문 《데일리 포크》는 조선의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나라를 일으킨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은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신 데서 잘 알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그 실현을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새로운 창조물을 일떠세우고 무슨 일을 한 가지 하여도 인민들이 좋아하자는가부터 물으시었다.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에서 최절정을 이루고 있다. 네팔인터넷잡지 《네팔 투데이》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고계시었다. 그이께서는 늘 수순한 잠바 옷차림으로 케기밭도 달게 드시면서 인민들을 찾아가곤 하시었다. 또한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력사의 모진 광풍을 헤치시며 조선을 참다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빛내이시었다.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사회주

의강국건설의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을수 있었다. 민주공고신문 《라브니르》는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인민이 바라던만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바로 그이께서 지니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었고 의지였다. 인민을 품에 안아 친어버이정도로 보살펴주시는것은 바로 사랑의 화신인 김정일령도자의 정사였다고 찬양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넷홈페이지 《빠트리오르 모스크바》는 이렇게 전하였다. 한평생 인민을 위해 펼치신 김정일령도자의 정치는 사랑의 정치이다. 그이께서는 생신날에조차 인민을 찾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었다. 조선인민이 김정일령도자를 《우리의 장군》, 《우리의 운명》이시라고 칭송하며 충정다해 따른것은 그이께서 오직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참다운 어버이이시였기 때문이다. 참다운 인민적령도자의 위대한 귀감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세계진보적인사들은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절충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며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공화국의 인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주체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더 높이 펼쳐가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마자로로동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들은 2018년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 조

선로동당의 올바른 정책은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제안들과 조선의 자주정치는 세계인민들속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제재책동을 불거픔으로 만들고 있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은 사회주의조선이 세계정치무대에서 볼베의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위상, 강요한 조선인민족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며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무궁장대할 태양이 펼쳐져있으며 정의와 항심을 바라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밝은 미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이렇게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령도하시으로써 조선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수십년 지어 100년이 걸려야 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조선인민은 만리마속도로 내달려 나라의 이름은 곳곳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으며 급속공업, 기계제작공업, 농업에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진행될 열병식 및 평양시공중시위, 대집단초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갈려는 조선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위력을 전세계에 과시하였다. 베네수엘라 통일된 좌익당 련방정치비서국 총조정자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인민이 거둔 자랑찬 성과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정의로운 인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조선의 정치사상적위력은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온 원동력으로 되었다. 2019년에도 조선인민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로씨야 인사들 강조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로씨야인사들이 적극 지지하고있다. 로씨야연방공산당 하바롭스크 변경위원회 제1비서 그로모브와 로씨야연방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 하바롭스크변방위원회 1비서 첵츠크는 5일 련명으로 된 련대성원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지난

해에 진행하신 북남 및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들은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자주주도의 정당성을 실증해주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로씨야연방공산당 울라지보프스키시위원회 제1비서 썬쓰르브는 2일 담화에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은 물론 진보적인류에

게 큰 감명을 준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깊이 연구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실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그의 전력적인 령도가 있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조선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개막

제34차 김일성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20일에 개막되었다.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은 기초과학, 전자자

동화, 정보기술, 농업 및 생물공학, 의로기구 및 제약분과 등 12개 분과로 나누어 과학기술성과와 착상 발표회 및 전시회, 단위별 전시경연,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

는 리론실천적,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첨단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점을 두고 과학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룩한 30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와 80여건의 과학 착상을 축전에 출품하였다. 운수기계대학, 경공업기계공학부, 평양기계기술교류사에서도 교육도시인쇄공장, 함흥목제품공장 등 여러 공장, 기업소의 현대화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하였다. 본사기자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평양기계종합대학에서 두뇌전, 실력전을 힘있게 벌려 지난 1년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사회과학부의 교원, 연구사들이 절세위인들의 사상리론과 업적, 위대성을 널리 해설선전하는 도서 8종과 과학소논문 100여건을 집필하였다. 기초과학부를 비롯한 대학의 학부들에서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학술형인재들과 실천형인

재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는 《공기압 및 유압공학》, 《별렬로보트설계와 해석》 등 100여건의 교과서, 참고서들을 내놓았다. 대학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원로, 설비들을 국산화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80여건의 가치있는 연구성과들도 이룩하였다. 기계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기계설비현대화의 발전추세에 맞는 고속화된 공

민족자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립장은 평화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에서 항시적으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립장이다. 북남관계의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주 인민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다. 나라의 통일을 가장 열렬히 바라는것도, 통일조국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민족의 원망은 하나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두 차례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

칙을 견지해나간다면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철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관계발전과 통일을 위해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다 아는것처럼 지난 시기에도 북과 남사이에는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훌륭한 소중함 합의들이 적지 않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북과 남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들이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등으로 인해 옹당한 결실을 이루지 못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북남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외부세력의 눈치를 보거나 그에 추종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북과 남은 외세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평화번영과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난해 북과 남은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

남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내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방해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서서 단합된 힘으로 올해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분노한 광주시민들 《자유한국당》 규탄투쟁에 총결기, 광주범시민운동본부 결성

남조선의 《CBS》 방송에 의한 광주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투쟁에 총결기해나갔다. 5.18광주봉기를 《폭동》으로 회색자들을 《종북파 파가 만든 괴물》로 매도한 《자유한국당》의 처사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5.18광주봉기를 모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와 전두환 등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림을 그린 대형현수막을 머리위로 들고 갈기갈기 찢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시위행진이 있었다.

5.18광주봉기가 민주항쟁이라는것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반민주세력, 적폐세력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투쟁으로 《자유한국당》을 징벌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5.18광주봉기를 모독한 《자유한국당》의 김진태와 전두환 등이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있는 그림을 그린 대형현수막을 머리위로 들고 갈기갈기 찢으며 울분을 토로하였다. 이어 시위행진이 있었다.

시위에 참가한 광주시장,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등은 력사의식이 없는 그런자들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명하기 위해 싸울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한 력사전문가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사태는 참담하였다. 녀학생 수백명이 금남로에서 군인들의 총에 맞아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만은 항쟁에 참가하였던 나의 아버지를 《빨갱이》로, 광주학살만행의 진상을 폭로한 사람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았다고 그는 격

분을 표시하였다. 한 광주시민은 《자유한국당》의 5.18만행은 명백하게 력사외곡이고 바로잡아야 하기때문에 거리에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제헌된 1980년 5월 광주》, 《광주시민들에게 5월 5일 광주를 민주주의 그자체》, 《5.18에 희생된 광주시민 생각하면 눈물 흘러》 등으로 이날 광주시민들의 투쟁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언론들은 이날 광주 금남로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1980년 5월의 광주를 련상케 하였다. 5.18민주유공자유족

회의 어머니들도 당시 5.18 민주화운동때처럼 거리의 한켠에서 찰밥을 등글게 말아 시민들에게 나눠주었다. 광주시민들은 서로 손을 잡고 《고맙다》, 《인사를 나누었다》, 주먹밥을 손에 든 광주시민들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는 말을 주고 받았다. 진압군에 대항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웠던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의 모습과 같았다고 보도하였다. 23일에는 서울의 문화포광장이나 《국회》건물앞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범국민 집회들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강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영원한 인민의 아버지

은 나라 전체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류가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공동의 명절로 의의있게 경축하였다.

평양과 각 지방들에서, 해외동포들이 사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지역땅에서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77돐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광명성절은 절세의 예주자,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끝없이 경모하는 만민의 그리움이 뜨겁게 분출하는 경사로운 명절, 장군님의 불멸의 생애와 업적을 가슴깊이 새기는 2월의 명명절이다.

세상에 나라나 민족들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의있게 쇄거나 기념하는 명절이나 경축일은 많아도 광명성절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큰 명절은 없다.

제23차 김정일화축전장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축전장에 아름다운 화원을 이룬 한말기, 한말기의 명화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이 어여있고 그이의 한생의 업적이 비껴있다고 하면서 감동을 피력하였다.

경사로운 2월의 명절에 펼쳐진 불멸의 꽃바다를 보면서 절세위인의 태양처럼 환한 신 영상과 따뜻한 미소, 불멸의 업적이 어려와 감동을 금지 못해한 사람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한평생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인민의 아버지, 인민의 태양이시다. 그의 평생의 좌우명은 이인위천이었다.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다는것이 그의 예국신조였다. 인민을 위한 복무를 력사적사명으로 삼으신 그이의 마음속에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 차있었다.

—우리는 모든것을 인민이 요구하고 바라는데로 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싶은것이 나의 심정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활동의 근본원칙이고 생의 목표이다.

로선과 정책을 세우면서,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

면서 그리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에 숭고한 인민관이 그대로 합축되어있다.

삼일포득산물공장, 최현제사공장, 대동강식료공장, 보통강상점, 향만루대중식당 등 산업시설과 상업 및 금융봉사기지를, 라조목장, 돼지공장, 닭공장, 양어장을 비롯한 축산, 양어기지와 만수산대저리, 마전호텔, 갈마극장 등 건축물들을 비롯하여 이 땅에 수풀처럼 일떠선 창조물마다에 인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기울으신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여있다.

이제껏 음식상을 볼 때에도 인민들의 밥상을 먼저 생각하고 좋은 옷을 볼 때에도 인민들의 옷차림을 먼저 생각하며 집을 지을 때에도 인민들의 살림방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신것을 보면 인민의 요구와 리의, 지향을 얼마나 최우선, 절대시 하시는가를 잘 알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99(2010)년 2월 어느날 현대적으로 개건된 2.8비

론린합기업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기업소를 돌아보신 이이께서는 기뻐하며 부르짖고 포근한 새하얀 비닐론솜을 보고 또 보시며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닐론옷감을 더 많이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였다.

공장을 하나 건설하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도 인민들이 덕을 볼수 있게 하고 제일 좋은것, 제일 귀한것은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해야 한다는 장군님의 의도와 보살피심은 통라품들어판에도 깃들여있다.

주제100(2011)년 3월이였다.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에 품들어판을 건설하도록 할때 대해 이르시면서 품들어판을 건설하면 인민들, 특히는 청소년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통라도에 유희장과 놀이기구등 무얼것으로 예견하고있는만큼 품들어판도 거기에 건설하는것이 좋다고 하시였다.

나는 그날에서 행복을 찾지 않는다고 하시며 사시 장철 곳엔날, 마른날 가림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의 정력적인 현지지도는 숭고한 인민관의 발현이었다. 그 길우에서 대동강과수향농장같은 같은 굴지의 정춘과원이 태어나고 칠갑산에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 나아가는 자랑찬 헌선, 장자장의 불야경, 한드레벨의 지평선과 같은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오늘날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명주 하나에도 명주는 인민들이 즐겨하며 애용하는 술, 값도 높어 누구나 다 마실수 있는 술이라고, 어느 술이 명주인가 하는것은 인민들이 마셔보고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깃들여있다. 평양의 창천저리에 있는 인민극장도 《인민》자가 붙은 극장을 훌륭하게 건설하여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새로 솟아나게 될 최상급 예술극장의 이름도 친히 《인민극장》으로 명명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그 사랑을 길이 전해주고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레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데는 그의 인생관이였다.

자기 대에는 비록 락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후대들이 덕을 볼수 있게 모든것을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면서도 최대의 속도로 창조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였다.

이이께서는 하나의 구상을 펼쳐서도 50년, 100년을 내다보시고 하나의 창조물을 세워서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자신의 발걸음이 늦어지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하시며 강추위와 무더위, 폭우도 아랑곳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신 장군님이시다.

인민사랑이 자신의 정치리념이고 모든 사색과 실천의 출발적기초이며 한생의 전부였기에 로고로 침착한 중한 병상대를 놓고 의료진이 강행군을 삼가달라고 간청했지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나 나는 동무들이 하라는 대로 할수가 없다고, 내가 하라고 하는데도 동무들이 북돋아주어야겠다고 하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였다.

그이의 위업적공포에 대해 재우즈베기스편동통신문 《통일》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이 국가 및 정치활동가이시며 인간인 김정일장군님의 생활신조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정일령도자는 나라를 위해 한평생 모든 정력을 강그리 쏟아부었으며 자신이 열렬히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 바쳐 일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몽골의 문제매통신은 《김정일령도자는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열차에서 순직하시였다. 그의 로고의 자취는 조선의 방방곡곡에 새겨져있다.》고 전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애국애민의 열과 냉을 다 바친 인민의 아들, 인민의 아버지의 고귀한 생애이다.

한평생을 바치시어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위한 고귀한 재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과 더불어 그는 영원히 우리 겨레와 함께 계신다.

로철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추억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함없는 그리움속에 노래를 부른다.

《인민사랑의 노래》, 《그리움은 끝이 없네》, 《아 그리워》... 후손단체에 길이 빛날 위인의 업적을 부패투러운 력사책이나 기념비로만 아니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흥로운 노래, 감사의 노래로도 무궁토록 전해져야 한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각 차있었으며 인민이 바라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고 의지였다.

주제91(2002)년 8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좋은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며칠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시고 받은 충동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신께서는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결속 공연을 할 때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한결같이 구호를 웨치며 열광적으로 환영하는것을 보면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좋은 인민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느꼈다고, 그전에 진행한 당창건 55돐 경축행사때에도 수십만의 군중이 주석단을 향하여 격정에 넘쳐 만세를 부르면서 뜨겁게 환영하는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좋은 인민을 가지고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좀 힘겨운 생각이 들다가도 땅을 절때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인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하였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군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군들이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인민들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지도

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장군님이시였다.

이 나라의 새벽문을 제일 먼저 여시며 하늘아래 첫 동네로부터 분계연선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에 그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발자취들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인민들에게 비닐론복포와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 제대군인의 이해가 물리는 소박한 정도 들어주시여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지어주신 그의 사랑이 《비닐론 삼천리》, 《대홍단 삼천리》, 《대홍이와 홍단이》와 같은 노래들도 낳았다.

1년에 한반밖에 없는 자신의 생신날마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밧고 힘찬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셨으니 일년 삼백여순다섯날은 그이께서 인민을 위한 헌신과 복무의 날들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고 또 바라신것은 조국땅 그 어디에나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고 사회주의의 재부가 넘쳐나는것이였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였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눈보라사나운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장군님이시였다.

이 인민은 아버지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로고와 업적이 빛나는 이 강산을 그의 모습으로 짝 차있다고 노래하는것이이다.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업적을 청송하는 노래들을 부르고 또 부르며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업적과 인민사랑의 화폭들을 다시금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강산에는 그리움의 노래, 인민사랑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그리움의 노래, 인민사랑의 노래



홍모의 마음안고 피어난 불멸의 꽃송이들

은 겨레와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홍모의 마음과 마음들이 끝없이 달려오는 제23차 김정일화축전장은 활짝 피어난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로 하여 참관자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그가운데는 해외동포들이 보내어온 김정일화들도 적지 않았다.

《해외동포들이 보내어온 꽃들인데 정말 생신하고 아름답지요?》

《여기를 좀 보요.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도 꽃들을 보내어왔구만.》

한가정인듯 어린애를 안고 축전장에 함께 온 젊은 부부가 주고받는 말이였다.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를 가슴속에 새겨넣으려는듯 눈길을 떼

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김정일화축전장에 불멸의 꽃을 피워 안고온 사람들의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하나같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를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홍모의 마음이었다. 그러한 마음들이 가루고 피워올려 더욱더 아름다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열렬히 홍모하는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수많은 김정일화가 보급되었다.

김정일화축전장을 찾은 참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다시금 가

슴깊이 새겨안으며 영원히 그이를 높이 모실 맹세의 마음을 안고 간다.

자연을 꽃은 빛과 열, 자양분과 물이 있어 피어나지만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으로 하여 활짝 피어나고있는것이이다.

절세위인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진보적인류의 절절한 그리움과 홍모의 마음들이 정히 피워올린 불멸의 꽃 김정일화들.

인류성성의 고귀한 결정체인 김정일화는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전하며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다.

김장일



다함없는 홍모의 마음을 담아

옷칠그릇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주제104(2015)년 9월 조선을 방문한 란 초 만만방공화국외무성 부상이 삼가 올린 선물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홍모의 정을 안고있던 그는 조선을 방문하는 기회에 어떤 진귀한 선물을 올릴것인가를 거듭 생각하던 끝에 만마의 유명한 공예품인 옷칠그릇을 선물로 마련하게 되었다.

선물에는 만마의 전통음식인 절임차원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마, 콩, 락화생, 닭, 개, 마른새우, 생강편, 코코아편 등이

러가지 진음식을 담겨 되어있다 한다.

검은색바탕의 선물에는 뚜껑과 그릇의 전둘레에 금색의 꽃과 나뭇가지들이 정교하게 형성되어있다.

에로부터 차를 마시며 차이로 절임 등 음식을 만들어먹는 동남아시아의 나라 만마에서는 귀한분에게 옷칠그릇에 절임차료를 담아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선물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부상의 다함없는 존경과 홍모의 정과 함께 그이의 건강을 바라는 그의 뜨거운 진정이 담겨져있다.

선물의 재질은 나무와 옷칠감으로 되어있으며 규격은 직경 19cm, 높이 9cm이다.

그는 선물을 올리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저의 명의로 이 소박한 선물을 올리는바이다. 선물은 만마의 유명한 장식용옷칠그릇이다.》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절세의 예주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빛나는 력사문화유적유물들과 천연기념물 등 민족유산들을 보존, 보호관리하고 후세에 길이 물려가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다.

북부고산지대에서 사는 풍산개가 민족의 자랑, 조선의 국견으로 보호종식되고있는것도 그의 세심한 보살피심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풍산개의 원종보존과 종식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여러차례 량강도 김형권군을 찾으시였을 때 풍산개의 사육정형에 대하여 로해하시면서 풍산개순종을 빨리 번식시키기 위한 대책과 함께 풍산개를 많이 기르는데서 나오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밝혀주셨다.

이이께서는 풍산개의 생물학적특성과 고유한 특징에 대하여 력사가나 해당분야 전문가이상의 깊은 식견을 가지고계셨다.

주제76(1987)년 6월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에게 풍산개를 찍은 사진을 내보이시며 이런 개를 본 일이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리시고는 풍산개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였다.

이개가 바로 우리 나라에서만

가 없다. 풍산개는 평소에 것처럼 유순하지만 어떤 적수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며 한번 싸움에 불기만 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다. ...

이어 이이께서는 풍산개와 관련한 일화도 흥미진진하게 들려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있는 풍산개이다. 개는 세계적으로 300여종이나 되고 개의 용도에 따라 경비용개, 작업용개, 사냥개로 나누어는데 풍산개는 경비용이나 사냥개종류에 속한다.

풍산개는 원산지가 량강도 풍산군(지금의 김형권군)인데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사냥개보다 몸집이 작으면서도 목과 가슴이 단단하며 이빨이 예세다. 이개가 무척 명리하고 온순하며 주인을 잘 듣고 따르지만 일단 적수와 맞닥들면 용서

주지였다.

옛날에 한 사냥꾼이 범을 잡으려고 날마다 산판을 해매었다. 하지만 술한 고생을 하면서도 범은 잡지 못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돌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가 기르는 풍산개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주인은 허겁지겁 사방으로 개를 찾아다니였다.

밤이 퍼이숙하여야야 개가 돌아왔는데 허리머리는 온통 젖고 몸집은 피투성이가 되어있었다.

주인은 영문을 알길이 없었고

범잡은 포수로 동리에 널리 소문나게 되었다. ...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남달리 사랑하신 이이께서는 풍산개와 같은 국가천연기념물 하나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시었고 그에 대하여 자상히 알고계셨다.

조선고유의 로고체인 풍산개를 적극 보호종식시켜 민족의 재부로 길이 물려가도록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애와 민족애의 열도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리 설



온 겨레는 통일의 백두산을 우러릅니다

—재중동포 백성현—

만년장설속에서 피어나는 만병초도 백두광명성을 우러러 푸른 잎새 펼치고 정일봉의 청신한 이갈솔도 성산의 영원한 주인을 청송하며 설레이는 2월이 왔습니다.

장쾌한 해돋이에 천하가 불라는 백두산상에 오르니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을 무르익히실 때마다 눈보라 날리는 이 산정에 오르시어 혁명신념을 더욱 가다듬으시고 겨레의 앞길에 자주통일의 전환적극면을 펼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이 태양의 모습으로 뜨겁게 어둡습니다. 동북지방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이 자주 찾곤 하는 성산이지만 지난해 9월 북남수뇌분들께서 아로새기신 력사의 자욱을 더듬으며 오르는 이해의 등정길은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어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철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하여줍니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하시며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전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안겨주시고 가슴벅찬 6.15자주통일시대도 펼쳐주시었습니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백두밀림의 한 그루 나무에도, 이름없는 바위며 풀 한 포기에도 80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의 온갖과 심신을 다 바쳐오신 주석님의 위대한 한평생은 겨레의 통일념원과 더불어 조국통일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백두산은 주석님의 애국의 뜻과 념원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빨치산의 아들인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조국통일자욱이 어려있어 경건한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백두산정에 오를 때마다 장군님의 통일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거이 받아안곤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장군님께서 일군 들에게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가 분열되어 민족적비운을 겪고있다고, 세계에는 우리 나라처럼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갈라져사는 민족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는 21세기의 문이구에 들어서서 오늘 우리의 생명은 자주이고 자주는 곧 통일이라는 사상을 더욱 강하게 들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고 합니다.

그해 10월, 장군님께서 그 어떤 큰 구상을 하거나 작전을 할 때에는 늘 백두산에 가곤 한다고, 눈보라가 날리는 백두산정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피어린 항일대전을 돌이켜보고 온 나라에 떠받들려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느라면 통이 큰 작전과 구상이 떠오르고 그에 대한 신심과 용기도 생기곤 한다고 하시면서 력사적인 평양수뇌상봉을 몇달 앞둔 3월 백두산에 오르시었던 그날을 뜨겁게 회고하시었

감동깊은 나날도 있고 로고의 한밤을 지새시며 전민족의 지향과 의지를 담아 집필하신 불후의 명저와 조국통일방략들도 있으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에 통일강국의 패일을 확신하시며 력사의 천필을 남기신 조국통일문건도 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한평생은 조국통일을 위한 한평생이라고 하시며 주석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전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여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대강으로 안겨주시고 가슴벅찬 6.15자주통일시대도 펼쳐주시었습니다.

눈부리 아득히 펼쳐진 백두밀림의 한 그루 나무에도, 이름없는 바위며 풀 한 포기에도 80평생 조국의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의 온갖과 심신을 다 바쳐오신 주석님의 위대한 한평생은 겨레의 통일념원과 더불어 조국통일사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백두에서 밝아온 통일의 새시대

백두산은 주석님의 애국의 뜻과 념원을 필생의 사명으로 간직하신 빨치산의 아들인 김정일장군님의 거룩한 조국통일자욱이 어려있어 경건한 마음을 더욱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해외동포들은 백두산정에 오를 때마다 장군님의 통일헌신의 세계를 가슴뜨거이 받아안곤 합니다.

2000년 1월 1일, 장군님께서 일군 들에게 외세에 의하여 반세기가 넘도록 나라가 분열되어 민족적비운을 겪고있다고, 세계에는 우리 나라처럼 오랜 세월 외세에 의해 갈라져사는 민족이 없다고 하시며 우리는 21세기의 문이구에 들어서서 오늘 우리의 생명은 자주이고 자주는 곧 통일이라는 사상을 더욱 강하게 들고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기어이 이룩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었다고 합니다.

제인들도 오고 종교인, 언론인들도 찾아와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이 땅에서 반민단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이 제일임을 때부로 절감한 우리 겨레였습니다.

그 나날 장군님께서서는 통일이 언제면 될수 있는가고 말씀올리는 남측언론사 대표단 성원들에게 그건 북과 남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는가에 따라서 통일은 이제 당장이라도 실현될수 있는 문제이라는 철의 논리로 즉석에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어 온 겨레에게 《우리 민족끼리》의 진리도 깊이 새겨주시었습니다.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동포들이 금강산의 구룡연으로, 만폭동으로 구름처럼 오르고 통일의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의 동음소리가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었으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관람하러 수많은 남녘인민들이 평양길에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평양에서, 개성에서 통일대축제가 려이 펼쳐져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고 넘치던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감격스런 현장들에서 메아리친 《우리는 하나다》의 통일합성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펼쳐져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고 넘치던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감격스런 현장들에서 메아리친 《우리는 하나다》의 통일합성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펼쳐져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고 넘치던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감격스런 현장들에서 메아리친 《우리는 하나다》의 통일합성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펼쳐져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고 넘치던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감격스런 현장들에서 메아리친 《우리는 하나다》의 통일합성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펼쳐져

민족화해와 단합의 열기가 하늘땅에 차고 넘치던 자주통일의 새시대, 그 감격스런 현장들에서 메아리친 《우리는 하나다》의 통일합성들은 《우리 민족끼리》리념의 진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자부심을 나타내어 펼쳐져

벗한 과시였고 이 길따라 끝까지 통일이 되어 나아갈 드림없는 의지의 힘찬 분출이었습니다. 저는 천지를 진감하는 그 나날의 우렁찬 합성이 장군님께서 성스러운 백두의 정신을 우리로 거쳐 삼천리에 울려주시민 민족자주, 민족대단합의 퇴성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남조선의 인터넷신문인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통일한마음》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6.15통일시대는 태동하였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민족자주, 조국통일의 상징이다. 그러니 조국통일위업은 백두산의 힘으로 실현되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족의 장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누르지 못하면서 격정을 터치었습니다.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남측일행과 민족문제, 나라의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하시며 관문점에서 시작된 새로운 력사를 더욱 기운차게 떠밀어주시민 그분의 뜨거운 동포애와 바다처럼 넓은 도량에 온 겨레가 경탄과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9월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름길을 열어주시고 사연깊은 삼지연못가에서 애국의 참뜻을 새겨주시며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어나가는데서 새로운 전환적극면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는 날로 강렬해지고 있다.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고 정전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오랜 세월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를 최악의 군사적 긴장속에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평화는 참으로 소중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사활적인 요구이며 북남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자주통일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지금 우리 겨레는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개로 돌려세우고 평화 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극적인 변화들과 경이적인 사변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번영하는 민족의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 주었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기류가 흐르고있는 현실은 우리 겨레는 물론 세인의 커다란 지지와 환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과 남은 평화변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조속한 조치로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이번 새해맞이런대모임에서 민족화해회의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위원

장, 제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을 비롯한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북과 남, 해외의 대표들은 사상과 리념, 정경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련대연합을 실현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를 되돌아보았다. 이번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고수하고 그를 철저히 리행해나가기

위한 결의와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였으며 북과 남이 마음과 뜻을 합치고 굳게 손잡고나갈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변영과 통일을 앞당겨올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북과 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민족화합의 길에서 북과 남이 굳게 뭉치나갈 때 극복 못할 난관과 장애란 있을수 없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기치밑에 삼천리강토의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굽이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도도한 흐름은 평화변영과 자주통일의 밝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철민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해로 빛내이자!

올해는 좋게 발전하고있는 북남관계흐름을 더욱 추동하기 위해서는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서 북과 남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에서는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할것을 천명하였다. 평화국은 올해에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이민 새해맞이런대모임에서 민족화해회의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위원

이민 새해맞이런대모임에서 민족화해회의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위원

이민 새해맞이런대모임에서 민족화해회의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위원

이민 새해맞이런대모임에서 민족화해회의 회장,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위원장,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 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취위원회 위원

민족운명개척의 주인이 되어

이 금강산에 모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가지었다. 이번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로 된다.

이 금강산에 모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가지었다. 이번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로 된다.

이 금강산에 모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가지었다. 이번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로 된다.

이 금강산에 모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가지었다. 이번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로 된다.

이 금강산에 모여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을 가지었다. 이번이 금강산에서 진행된 북남선언리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런대모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겨레가 이룩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로 된다.

광주대학살만행을 비호두둔한 살인정당의 추대

보수적폐의 아성으로 남조 선인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경악할 망언으로 또다시 세간의 분노를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페거리들은 《국회》에서 벌여놓은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데서 국우보수팔통으로 악명높은 지만민을 칭해다 《5.18은 북한군에 의한 폭동》, 《전두환은 영웅》이라고 고야대게 하고는 박수를 쳐대며 이구동성으로 합창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내세워 《5.18문제만큼은 우자가 결구 물러서서는 안된다》, 《폭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5.18유공자는 종북파가 만든 괴물집단》이라는 해괴한 꾀비들을 줄줄이 늘어놓게 하였다. 사대반역과 동족대결로 뼈속까지 절은 인간오물들이 모인 곳에서 함구수나 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남조선의 민주화영령들을 모독하다 못해 북남관계발전의 시대를 부정하며 동족까지 절고되고 있으니 누가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광주인민봉기가 《폭동》이라면 12.12군쿠데타는 《혁명》이고 《광주시민 70%를 죽여도 좋다》고 뇌까리며 한도 더시를 인민들의 피로 물들인 살인악마 전두환은 《영웅》이란 말인가. 광주인민봉기가 《폭도》들의 《반동》이라고 한다던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만행으로 전두환, 로태우가 손에 수갑을 차고 감옥살이를 한것도 《잘못》이고 《남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광

주영령들을 추억하고 그 넋을 이어 민주와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려고 노력하는 남조선인민들도 《죄인》이라는 말인가. 《5.16은 《한국》의 명치 유신》, 《중군위안부할머니들이 가져갈수 있다》, 《나머의 개나발만 붙어내는 지만민이라는 도깨비를 끌어들이는것도 그렇고 《폭동》이 아니라, 《전두환은 영웅》이니 하는 나발들도 남조선인민들의 자랑찬 민주화 투쟁력사에 대한 전면부정, 정면도전인것이다. 광주인민봉기는 친미군사강제들의 군사쿠데타와 5.17파소속거에 대한 정의의 항거, 《유신》잔당들을 완전히 청산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의지와 의기 합쳐지고 폭발된 대중적인 민주화행진이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광주인민봉기는 1948년의 4.3인민봉기, 1960년 4월 인민봉기, 1979년 10월민주항쟁, 1987년 6월인민항쟁 그리고 2016년의 초불항쟁과 더불어 남조선정치사에서 민주화투쟁의 근간을 이루고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력사이고 전통인 동시에 처절한 아픔이고 통탄의 고통도 품고있는것으로 하여 광주인민봉기는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에 격동과 비분의 추억으로 고매되고있다. 광주주의 열혈함, 열혈밤은 글로 씌어졌듯이 아니다. 10대의 청소년들로부터 70대의 로인에 이르기까지 수 십만 광주시민이 웅천 《유신철폐》, 《비상계엄령철폐》, 《민주주의개혁실시》, 《전두환을 쫓아주라》 등은 온 남녘민심의

분출이었고 피의 절규였다. 의신들도 《피의 목욕탕》이라고 성토할 정도로 광주는 갈갈이 찢기였었고 무등산은 오늘도 몸부림치고있다. 악마의 눈에는 모든것이 악으로 보이는것처럼 사랑과 정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바친 광주주의 영령들과 그 유가족들이 《괴물집단》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는 상건의 령에 추종하여 《환각제》까지 퍼먹고 시민들에게 총을 판사하고 총장과 대검으로 치너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가른 악귀들은 무엇이라 불리야 하겠는가. 그 악귀들의 우두머리를 《영웅》이라 개여올리는 시정잡배무리나 광주대학살을 재현해보려고 초췌시인들을 짓밟기 위한 쿠데타음모를 꾸미었던 《유신》악녀는 또 무엇이라 지칭해야 하는가 하는것이다. 독재의 후예들, 아수의 종자들인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5.18영령들을 두번 죽이는 잔인한 정치적학살이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정의와 진보를 바라는 민중에 대한 악랄한 정치테러이다. 《북측수군 600명투입》이라는 망발은 또 얼마나 무지스러운가. 당시 《5.17비상계엄조치》로 군사강제들이 눈을 밝히고있는 때에 600명이 전라남도 광주에 《투입》되었

전엔 열을 올렸었다. 임금의 상성이 일본당국이 치적으로 광고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때문이다. 《아베노믹스》는 아베의 경제정책을 일컫는것으로서 대폭적인 금융완화, 대담한 출자,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3가지등으로 하여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일본경제를 단기기간에 추켜세우는것이다. 지난해에도 아베정권은 6월 임금증가율이 3.3%로 21년 5개월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며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으며 올해 1월 28일에도 시정연설을 통해 《5년 연속 이번 세기 최고수준의 임금인상이 행해졌다》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진상이 드러남으로써 지금껏 아베정권이 치적으로 자랑하던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허

다 하며 수습에 나서고있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오늘 일본의 경제현황은 다달이 감소되고있고 기업체들은 려인이 파산당하고있으며 국가는 최대의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경제정황들이 나날이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속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민들의 생활

광주희생자들에 대한 모독행위를 비호하는 보수역적당을 비난

최근 남조선신문들이 광주 봉기의 정신을 외곡하고 희생자들을 모독한 자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비호해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난하는 글들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소속 《국회》의원들이 광주희생자들을 모독하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규탄하였다. 한심한것은 이와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라고 하면서 신문은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이 주모자들을 징계할데 대한 각계층의 요구에 《견해차이가 있을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수 있다. 그 자체가 보수정당의

생명력》이라고 췌쳐낸데 대해 밝혔다. 이것은 원내대표 라경원이 《력사적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수 있다》고 한 망언의 연장선이라고 신문은 주장하였다. 신문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이라고 하는자들이 광주 봉기의 정신을 짓밟는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꼴이니 소속의원들의 주장이라고 하는자들이 광주 봉기의 정신을 짓밟는 망언을 《다양한 의견》으로 치부하는 꼴이니 소속의원들이 그 주모자들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않고있는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뿐만아니라 전두환, 로태우의 쿠데타로 수많은 생명이 죽거나 고문당하였던 이자 군례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다 들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

당시 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보훈처,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박해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광주봉기참가자 유가족들을 물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까지 조롱하고 모독한 패륜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을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 각계층 사법적 폐청산을 요구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16일 서울의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초불투쟁이 전개되었다. 3 000여명의 각계층 시민들이 초불과 《자한당(자유한국당) 해체》, 《공수처(국외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여기에 참가하였다. 발언에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때 권력기관들이 박근혜를 불법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다 들장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수 없다고 말하

당시 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보훈처,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박해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광주봉기참가자 유가족들을 물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까지 조롱하고 모독한 패륜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을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당시 정보원, 국방부, 기무사령부, 보훈처, 검찰,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서 박해를 지원하였다. 그들은 광주봉기참가자 유가족들을 물론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까지 조롱하고 모독한 패륜세력인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사법적폐를 청산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을것을 호소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만평 외곡

국제문제

최근 일본에서 정부의 주요경제통계조작의혹사건이 터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일본의 주요언론들에 의하면 정부가 발표한 40%인 22개 통계가 조작되었다고 한다. 특히 문제로 되는것은 일본정부가 발표하는 근로통계 조사이다. 근로통계는 일본정부가 실업과 최저임금 등을 산출할 때 사용하는 핵심지표라고 한다. 원래 통계는 종업원이 500명이상인 기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평균임금률을 산출해야 하는데 아베정권은 도외에 있는 대기업들만을 중심으로 그것도 3분의 1정도만 조사해서 임금통계를 했다고 한다. 지난해에 사상 최고임금 증가율을 기록하도록 아베 통계조사방식까지 바꾸었다고 한다. 아베정권은 그동안 일본국민들의 임금이 올랐다는 선

일본을 자멸의 길로 몰아가는 아베정권

다 하며 수습에 나서고있지만 사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있다. 오늘 일본의 경제현황은 다달이 감소되고있고 기업체들은 려인이 파산당하고있으며 국가는 최대의 빚더미우에 올라앉았다. 경제정황들이 나날이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속에 실업률이 높아지고 인민들의 생활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나라

오늘의 세계에 대하여 말할 때 누구나 공화국의 당당한 지위와 자랑스런 전변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조선을 축으로 하여 흘러가는 세계의 정치정세를 지켜보면서 더 밝은 미래를 내다 보는 공화국인들의 가슴가슴은 뿌듯하다.

아마도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 처럼 국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최절정에 이른 때는 없었으리라.

100여년전만 하여도 나라가 너무 힘이 약해 렬강들의 각축전 마당이 되었던 조선반도였다. 나중에는 외세에게 나라마저 송두리채 빼앗기고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가 되었다. 국호도 잃고 조선민족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빼앗기지 않았던 안되었다.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식민지조선, 암흑의 조선이었다.

너는 왜 남처럼 크지를 못하느냐고 이 나라 시인도 가슴을 쥐어뜯던 나라, 채찍에 얻어맞고 멍에에 짓눌려 허리마저 굽었던 민족이었다.

이런 조선이, 이런 인민이 이 모든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태어나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가고 있다.

당도 그 땅이고 인민도 그 인민의 후손들이건만 어떻게 되어 공화국이 세인이 선망하는 존엄 높고 강대한 국가로 빛을 떨칠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공화국이 데를 이어 위인을 모신데 있다.

공화국의 존엄은 위인이 주신 것이다. 강국의 위상도 위인을 모시어 떨쳐지는 것이다.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에 찬력사는 철세위인들의 애국의 령도의 령사이다.

철세의 애국자이시며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모셔 식민지조선은

해방조선, 자유조선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수천년 가난과 무권리에 시달리던 인민이 자주적인 존엄과 긍지를 누리고 온 나라가 화북한 하나의 대가정이 되게 된 것도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공화국인들이 받은 특전이다.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편이여 붕괴되고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데 이어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려이여 겹쳐 나라와 인민의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지난

세기 90년대, 그러나 세계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조선에서는 람홍색공화국이 더욱 기세차게 펴리고 제재와 압박의 사슬을 끊고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만리에서 치솟았으며 강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이 울려다녔다. 최약의 난관과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조선의 기적같은 현실이었다. 그 기적도 위대한 수령님그대로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아오신 것이었다.

어버이수령님 맡기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시려고 적대세력들의 봉쇄압살책동에 맞서 신군의 보검을 높이 추켜들신 장군님이시었다. 다시는 남에게 밝히우지 않는 강대하고 자랑스럽고 멋있는 나라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고, 억만금과는 대비도 안되는 인민의 영원한 존엄을 위하여 장군님 걸으신 애민헌신의 그 길들이 있어 자랑스런 오늘이 있음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

나 다 알고 격정에 겨워 노래하고 있다. 벼랑길에 지쳐내리는 야전차를 어깨로 밀고 오르시던 간고한 행군길과 췌기밥조차 없어 가마치와 맹물로 끼니를 예워야 했던 눈물겨운 밤들이, 험난한 눈보라길에 달리는 열음덩어리가 되었던 야전승용차며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마냥 들려오던 야전렬차의 기적소리가 가르친것은 무엇이었던가. 나라는 어려웠지만 장군님 계

시어 인민은 더욱 강해지고 시대는 더욱 아름다워왔다. 오늘도 높이 울리는 장군님 따라 함께 온 길 기쁨도 영광시런도 영광이었는데라는 노래구절속에는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주시고 강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이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웠는 것이다. 조선은 비약과 창조, 최대전성기를 누리고있다. 조선의 힘은 이 행성을 진동시키고 있다.

이해의 첫 아침부터 강대한 나라의 인민된 기쁨과 긍지속에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있는 노래 《우리의 국가》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눈부신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위인이 계신다. 그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으로 인민에게 다가오신 또 한분의 위인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시이다.

그는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알찬 열매로 이루어가시는 창조적 거장, 인민의 령도자이다. 일찌기 우리 나라는 대국들을 움직이는 전략적요충지에 있다는 유명한 정의로 오랜 세월 굳어졌던 지정학적속명론을 깨뜨리신 그이께서는 희생적인 헌신과 투쟁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 강국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게 가슴펴고 당당히 살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도 앞장에서 헤쳐가셨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

시려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창조와 건설의 기적도 려이여 기록하시었다.

오늘날 겨레가 온몸으로 실감하고 세계가 감동하는 시선을 모으고있는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변형흐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가져온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세계가 보란듯이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진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는것이 우리의 일관하고 원칙적인 립장이며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신 원수님이시이다. 그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전쟁의 위험이 절제 떠돌던 이 땅우에서 몇 개월사이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졌고 판문점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있는 노래 《우리의 국가》의 아름다운 선율과 더불어 눈부신 태양의 모습으로 안겨오는 위인이 계신다. 그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모습으로 인민에게 다가오신 또 한분의 위인이시고 탁월한 정치가이신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시이다.

그는 인민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알찬 열매로 이루어가시는 창조적 거장, 인민의 령도자이다. 일찌기 우리 나라는 대국들을 움직이는 전략적요충지에 있다는 유명한 정의로 오랜 세월 굳어졌던 지정학적속명론을 깨뜨리신 그이께서는 희생적인 헌신과 투쟁으로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 강국의 위용을 온 세계에 떨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에게 가슴펴고 당당히 살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도 앞장에서 헤쳐가셨고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안겨주

시려고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창조와 건설의 기적도 려이여 기록하시었다.

오늘날 겨레가 온몸으로 실감하고 세계가 감동하는 시선을 모으고있는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변형흐름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가져온 것이다.



조국의 벽천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리주화 총련 후꾸오까원본부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조국을 방문하여 뜻깊은 나날을 보내었다.

축하단성원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꾸려진 문화시설들과 자기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운 공장들을 돌아보면서 모든것이 인민의 행복과 보다 문명한 생활을 위하여 펼쳐지는 공화국의 인민사들의 정책과 보다 아름다운 레일을 앞당겨오기 위하여 새해의 총진군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자연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리주화 단장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상식을 비롯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많은것을 가르쳐주는 자연박물관이야말로 자랑할만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면서 리주화 단장은 지난 시기 여러번 와보았지만 훌륭

히 개진된 이곳에 다시 와보니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과 즐거운 웃음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펼쳐진 조국의 시책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축하단의 한 성원은 《규모에 있어서나 동물마리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동물원들에 못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원산구두공장을 참관하고나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에서 질 좋고 맛있는 구두들이 빙빙 생산되고 조국의 인민들이 멋진 이구두를 신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심과 용기에 넘쳐 미래로 나아가는 조국의 벽천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평양화장품공장을 참관한 소감도 피력하였다. 리주화 단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과도 당당히 견줄만 한 《은하수》 화장품들이 줄지어 나오는 생산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상식을 비롯하여 새롭고 특색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지구의 형성에 이르기까지 많은것을 가르쳐주는 자연박물관이야말로 자랑할만 한 곳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면서 리주화 단장은 지난 시기 여러번 와보았지만 훌륭히 개진된 이곳에 다시 와보니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과 즐거운 웃음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펼쳐진 조국의 시책이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축하단의 한 성원은 《규모에 있어서나 동물마리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름난 동물원들에 못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들은 원산구두공장을 참관하고나서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공장에서 질 좋고 맛있는 구두들이 빙빙 생산되고 조국의 인민들이 멋진 이구두를 신고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심과 용기에 넘쳐 미래로 나아가는 조국의 벽천을 넘을 수 없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평양화장품공장을 참관한 소감도 피력하였다.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것이 추세로 되고있다. 여기에 와서 남성용살결과 물크림을 비롯한 남성용화장품들이 생산되는것을 보면서 조국인민들이 누리는 문명한 생활에 대해 느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본들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생산공정의 현대화와 제품의 질제고를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량이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공장지배인의 말을 들으며 축하단성원들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번 써보고싶다며 저마다 말하였다. 특히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염색 시간이 빠른 염색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1분동안에 염색을 할수 있다는게 참 놀라다. 머리가 회여지기 시작해서부터 염색을 하였는데 1분만에 염색이 되는 염색제는 처음 보았다.》고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을 나서면서 축하단성원들은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고 락인을 꾸려가는 조국인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우리 국가를 상징하는 동식물들의 공통점

우리 나라의 국가상징으로는 국호, 국기, 국장을 비롯하여 국화 목란꽃, 국수 소나무, 국조 참매, 국견 풍산개와 같은 동식물들도 있다. 국가상징에 속하는 동식물들은 자기의 고유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일련의 공통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국가상징 동식물들이 우리 민족의 슬기롭고 역센 기상을 담고있는 데서 찾아볼수 있다.

백두의 흰눈처럼 정갈하면서도 맑고 깨끗한 국화 목란꽃을 보아도 예로부터 백의 민족으로 불리워온 우리 겨레의 순결한 정신세계를 상징하고있다. 목란은 단일꽃종으로서 어느 지방에 심어도 꽃의 향내와 크기, 색깔이 빠른 염색제들을 보면서 그들은 《1분동안에 염색을 할수 있다는게 참 놀라다. 머리가 회여지기 시작해서부터 염색을 하였는데 1분만에 염색이 되는 염색제는 처음 보았다.》고 말하였다.

평양화장품공장을 나서면서 축하단성원들은 자기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고 락인을 꾸려가는 조국인민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공화국의 해외공민들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변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본사기자 강류성



국화—목란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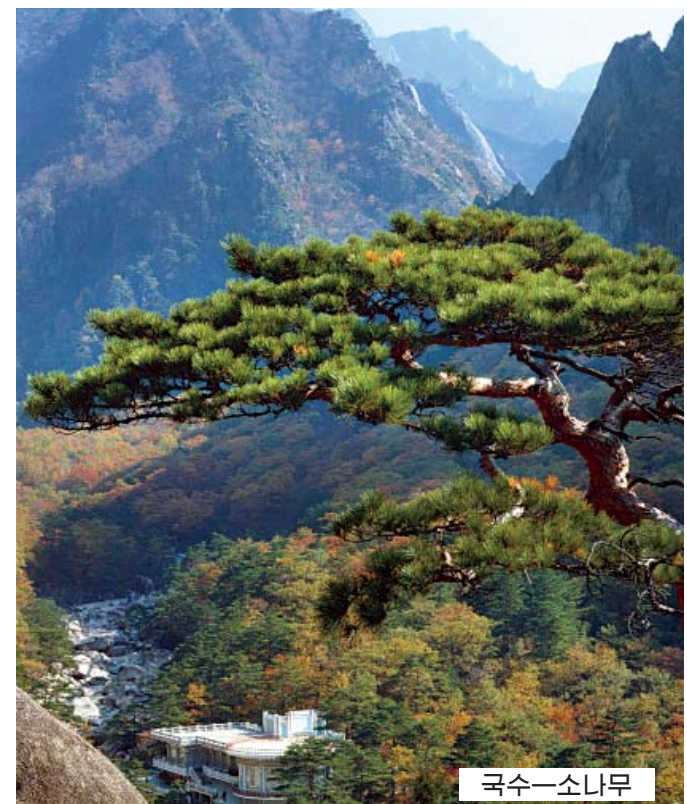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분포되어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하여 동북아시아나라들에 분포되어있는 목란은 북부고산지대를 제외하고 각지의 깊은 산과 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산허리 등 습기가 비교적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조선의 국수로 제정된 소나무의 학명은 Pinus densiflora이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소나무속에 속하는 종은 110여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는 Pinus densiflora의 원종이 기원된 소나무의 원산지이며 세계적인 소나무분포 중심지로 되고있다.

상원암 앞마당에서 자라는 묘향산소나무, 진달래와 소나무를 가지는 것은, 소나무의 원산지이며 총석정의 소나무공적, 해금강출설, 흥남출설, 명사십리, 마진, 우산장, 시중호, 새만금, 동원폭포 등 바다가, 섬, 호수가, 폭포 할것없이 그 어디에나 소나무들이 절경을 이룬 우리 나라야말로 소나무명산이라고 할수 있다.

독수리목 독수리와 새매속에 속하는 참매는 백두산 지역을 포함한 량강도일대와 자강도, 함경남도 등 우리 나라 북부의 고산지대에 서 번식을 하고 그 이남지대에서 겨울을 나는 사철새로 알려져있다.

세계적으로 약 400여개의 개종이 알려져있는데 그중에서 풍산개는 우리 나라의 북부지대인 풍산지방(현재 김형권군)에서 기원되었고 그 지역에서만 사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토착개종이다. 다음으로 국가상징 동식물들은 우리 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



국수—소나무

이던 그림)를 방안의 벽이나 때문에 붙이곤 하였는데 여기에는 참매의 용맹성을 빌어 그해 집안에 닥쳐드는 화를 막고 복을 불러들인다는 의미와 함께 아름다운 산천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소박한 녀인이 깃들여있다.

우리 선조들은 여러 종의 매가운데서도 사냥을 제일 잘하는 매를 참매라고 부르면서 매우 귀한 새로 여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소박한 녀인이 깃들여있다.

참매를 리용한 사냥이 활발히 진행되고 생활속에 깊이 침투되면서 그와 관련한

수많은 려사이야기, 일화와 함께 《시치미를 떼다》, 《청산에 매봉기》, 《매한테 쫓기는 꿩》을 비롯한 기지있고 뜻이 깊은 속담들이 생겨나 오늘날까지 전해지고있으며 《해동정》, 《까투리타령》과 같은 많은 시작품과 민요들도 창조되었다.

이렇듯 목란꽃, 소나무, 참매, 풍산개와 같은 동식물들은 조선민족의 역센 기상과 슬기, 우리 나라의 풍토와 문화, 우리 인민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을 맺고있는 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조선의 국가상징으로 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교원 박사 박학성



평양화장품공장을 돌아보는 광명성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성원들



국조—참매



국견—풍산개

휴양소에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소리

얼마전 금야군에 대한 취재를 이어가던 우리는 휴양소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지나가는것을 안 그들은 반색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휴양생활을 보낸 농민휴양소를 소개해달라고 하는것이였다. 그 말에 우리는 금야군 동흥농민휴양소를 향해 취재길을 떠났다. 안찰사로 향한 숲속도로 옆에 자리잡고있는 농민휴양소의 모습은 한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여러층의 멋들어진 휴양각들과 식당, 2층으로 된 체육관 등의 건물들이 계단식으로 들어앉은 휴양소의 위치는 참으로 명당자리였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리영철소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에 의하여 오랜 세월 산새들만 우뚝던 이곳에 오늘은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고있다고 하

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오랜 역사문화유적인 안찰사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치좋은 이곳에 휴양소를 건설해놓고 농민들이 와서 휴양하게 하면 좋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금야군에서 이곳에 농민들을 위한 휴양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던가?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겠다고 하였는지?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휴양소의 가로등 하나, 돌의자 한개, 나무 한 그루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그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가 처음 들린 곳은 배구경기장 한창인 체육관이었다. 출전한 선수들의 만만치 않은 기세와 자기 팀 선수들을 응원하는 휴양생들의 떠들썩한 목소리, 웃음소리로 하여 배구장은 화끈 달아있었다. 체육관에는 배구장만이 아니라 룽구장, 탁구장 그리고

여름철휴양생들을 위한 수영장도 꾸러져있었다. 이어 우리는 장기, 율놀이를 비롯한 민속놀이들이 흥겨운 웃음소리가 차가들마다에서 울려오르는 휴양각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훈훈한 공기가 감돌고 침대마다 포근한 이불과 담요들이 놓여있는 호실들에는 문화오락기재들도 갖추어져있었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휴양생들은 즐겁고 윤택한 휴양생활기간에 몸과 마음이 더 튼튼해졌다고 하면서 농장에 돌아가면 농사를 더 열심히 짓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풍요한 가을철에 자기들의 농장에 꼭 와달라는 휴양생들의 청을 웃음속에 들으며 우리는 점심식사준비가 한창인 식당의 주방에도 둘러보았다. 가락맞게 울려가는 칼도마 소리에 장단을 맞추듯 룽동

적으로 움직이며 식사를 준비하는 요리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휴양생들의 식탁에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한가지라도 더 놓아주기 위해 애쓰는 이들의 심정을 읽을수 있었다. 우리는 자기들이 출연하는 예술소품공연의 심사원이 되어달라는 휴양생들의 청도 거절하지 않았다. 독창과 혼성2중창, 웃음을 자아내는 재담, 흥취나는 춤가락도 있는 휴양생들의 예술소품공연은 시간가는줄 몰랐다. 돌아볼수록 농민휴양소가 농업근로자들을 위한 사랑의 집, 행복의 보금자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마음껏 휴양생활을 한 농업근로자들이 풍요한 가을철에 다수확농민의 영예를 지니게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김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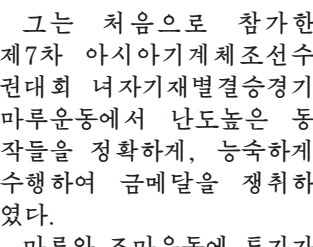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4)

7. 전도양양한 기계체조강자 김수정

10대에 두번째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의 영예를 지닌 김수정은 평양체육단 기계체조선수이다. 그는 지난해에 진행된 제11차 국제체조연맹 세계컵 기계체조개인기재별경기대회 여자마루운동에서 허리퍼 뒤공중 1 080° 돌아 앞공중결합동작을 박력있으면서도 재치있게 수행하여 막대한 선수를 물리치고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렸다. 또한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기계체조 여자기재별 8. 여자레슬링강자 정명숙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된 공훈체육인 정명숙은 4.25체육단 레슬링선수이다. 정수지체육소년체육학교에서 레슬링선수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는 그후 4.25체육단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이날 공화국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여자레슬링에 무시할수 없는 강자로 등장하였다.

결승경기 마루운동에서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동작들을 능란하고 조화롭게 펼쳐보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다.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이운데서 제일 나이 어린 그는 세계체조계가 인정하는 전도양양한 기계체조강자이다. 김정일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공훈체육인인 그는 오늘날도 애국의 열정을 안고 훈련장을 달리고있다. 그는 지난해에 제33차 세계군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레슬링 55kg급경기과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레슬링 57kg급경기에 출전하여 다양한 기술수법을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쳤다. 그는 2018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 55kg급경기에서도 자기의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오늘날도 정명숙선수는 금메달로 조국을 받들기 위해 훈련에서 더 많은 땀을 흘려가고 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그는 처음으로 참가한 제7차 아시아경기체조선수권대회 여자기재별결승경기 마루운동에서 난도높은 동작들을 정확하고, 능숙하게 수행하여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마루와 조마운동에 특기가



이달. 기쁘고 무늬의 주제는 당시 향로들에게 흔히 볼수 있는것이지만 도인상이며 무늬장식수법은 높은 예술적

오즘 명승지, 역사유적들에 대한 관광, 온천치료관광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끄는것은 마식령스키관광이다. 산세가 하도 험하여 말도 쉬어가는 고개라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마식령의 스키장은 체육과 관광, 휴식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졌다. 3월말까지 진행되는 마식령스키관광은 1박2일, 2박

3일, 3박4일과 같은 다양한 일정으로 진행되고있다. 마식령스키장에서는 스키, 썰매, 판스키, 스케트, 눈으로 만든 인물풍속도를 그린 두 칸무덤이다. 관광객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무덤건축술을 보여주는 유적중중의 하나인 강서지구의 고구려벽화무덤들을 돌아보고 강서약수공정에 훌륭히 꾸러진 약수목욕탕에서 천연약수로 온수욕과 족욕을 비롯한 치료욕과 운동치료도 받고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온천치료관광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신계사 오동향로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신계사에 있던 고려시기의 금속공예품으로서 불교의식에 쓰이던 향로이다. 향로는 고려의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걸작품중의 하나이다. 향로의 받침대에는 58자의 글이 은상감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1352년에 제작된것이다. 향로의 크기는 아구리부 본적경 44cm, 높이 45cm, 밑폭직경 29cm, 두께 0.7cm

또한 락꿩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형식의 락꿩무늬와 넝쿨무늬를 그릇전면에 적절하게 배치한 도인상이며 우 세련되고 그것을 은실로 겹겹히 감싸서 은금박이 은근하면서 빛나게 한 장식적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다. 은빛의 아름다운 장식적 효과를 위하여 바탕을 검은색으로 한 이 향로는 현존하는 오동향로중에서 가장 우수한것들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다양한 관광봉사

바이 등을, 마식령호에서는 수영, 오락 등 여러가지 봉사를 하고있다. 이에 못지 않게 평양1일관광봉사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주체사상탑, 평양국제비행장, 중앙동물

은 장소들이 관광대상으로 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평양에서 20여km 떨어진 남포시 강서지구의 역사유적에 대한 관광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덕흥리벽화무덤은 408년에

신계사 오동향로

이 달의 바깥에는 58자의 글이 은상감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1352년에 제작된것이다. 향로의 크기는 아구리부 본적경 44cm, 높이 45cm, 밑폭직경 29cm, 두께 0.7cm

여유시간에 할수 있는 손부위운동

여유시간에 손부위운동을 하면 계산능력과 분석능력, 인내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매우 좋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두손의 손가락을 벌리고 손가락을 곧추 편 다음 손가락과 손가락사이에 힘을 주었다가(이 순간에는 숨을 죽인다.) 3초후에 느슨하게 한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데 숨을 멈추는것과 함께 힘을 주어야 하며 두손을 함께 들어 쥐도록 한다. ② 숨을 멈추는것과 함께 깎지킨 손가락의 끝에 힘을 주어 손전등을 든다. (3초를 그 다음 느슨하게 하여 두손의 깎지킨 상태를 풀고 숨

단편소설 철마의 꿈 (3)

글 조정협, 그림 리성일

그때 건너편 승강구에서 서로 다투는듯 한 거센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 많고 시비를 가려주기 좋아하는 수연은 이런 날에 무슨 일인가 하며 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의외에도 한 할머니가 막달리기 시작한 렬차에서 내리겠다고 때를 쓰는것이였다. 《난 잘못 탔어! 내리겠다니까.》 슬렁거리며 모여선 승객들이 그 이상한 늙은이를 만류하고있었다. 《갑자기 왜 내린다고 그래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된다니까요.》 혹 치매를 앓는 늙은이가 아닌가 하며 안쓰러운 눈으로 그쪽을 바라보던 수연은 반색을 지었다. 오늘 자기가 만나야 할 바로 그 녀인이었던것이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녀인은 눈길도 들지 않은 채 마뚝잡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분명 《평양행》 기차표를 샀는데 이 렬차는 글세...》 그 착각한것이라고 생각한 수연은 《어머니, 이 기차가 바로 그 《평양행》 기차랍니다.》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옆에 섰던 젊은 이들도 이 렬차가 통일문화행사로서 도라산역까지 가게

언뜻웃 뒤로 번져지며 사라져가곤 하였다. 《그렇듯해, 나도 어제 저녁에 투대접해 보내고나서 혹 어떤 인연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더라니까.》 수연은 녀인이 자기가 어린시절에 본 그 녀인일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혹 윤정수라는분을 아시는지요?》 그것은 수연이 아버지의 이름이였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윤정수라구요?》 녀인은 매우 놀라워하였다. 그는 두눈을 부릅뜨며 수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헌데 일자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수연은 우연히 알게 된 이 녀인이 아버지가 림종시에 찾던 그 한수연임을 놀라움속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하지만 윤정수가 자기 아버지가

사실을 아직 말하고있지 않았다.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까요. 또 제 직업이 그런거니까요.》 수연의 눈길은 창력에 놓여있는 분홍빛벨벳꽃송이가 멎었다. 기차의 진동에 가늘게 떠는 꽃송이를 물리 리며 바라보던 수연의 귀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왔다. 《오래전 어느 겨울밤 우리 집에 왔던 한 녀자가 생각나니? 그 때 난 그가 누구냐고 물었지?》 하지만 수연의 질 창가에서는 밤이면 바이올린의 활 줄이 뿜어내는 우아한 선율이 주위의 어수선한 소음을 뚫고 은은히 울려나오곤 하였다. 그것은 어린 수연이 아버지에게서 펼쳐는 소박한 《연주회》였다.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여 인차 세계명곡도 몇곡쯤 연주할수 있게 된 수연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였다. 아버지가 선경해주는 약보의 부호를 따라 그는 공상의 나라를 펼치며 미래의 생활을 꿈꾸었다. 소녀의 녀는 자유로이 날개짓 하는듯 했지만 사실 그 녀가 날으는 하늘은 아버지가 아름답게 채색한 작은 유리함 같은것이였다. 가끔 유리함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흠칫 놀랄 때도 있곤 했으나 아버지는 안감힘을 더해 딸의 놀란 가슴을 잠재워놓곤 하였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도 그의 집 창문에서는 바깥세상의 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별들도 추위에 떠는 깊은 겨울밤 실연의 쓰라림을 안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사나이의 심정을 형상한 슈베르트의 《안녕히 주무십시오》의 애잔한 선율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이 노래를 연주할 때면 아버지는 두눈을 꼭 감은채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그런데 사나이가 달빛어린 싸늘한 대지에 눈물을 떨구며 떠나는 순간의 감정이 울려나오려는 그때 팽— 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을 갈아서 거기에 남 새, 고기 등을 섞어 기름에 볶아 뿜어내는 우아한 선율이 주위의 어수선한 소음을 뚫고 은은히 울려나오곤 하였다. 그것은 어린 수연이 아버지에게서 펼쳐는 소박한 《연주회》였다.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하여 인차 세계명곡도 몇곡쯤 연주할수 있게 된 수연은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였다. 아버지가 선경해주는 약보의 부호를 따라 그는 공상의 나라를 펼치며 미래의 생활을 꿈꾸었다. 소녀의 녀는 자유로이 날개짓 하는듯 했지만 사실 그 녀가 날으는 하늘은 아버지가 아름답게 채색한 작은 유리함 같은것이였다. 가끔 유리함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에 흠칫 놀랄 때도 있곤 했으나 아버지는 안감힘을 더해 딸의 놀란 가슴을 잠재워놓곤 하였다. 어느날 밤이었다. 그날도 그의 집 창문에서는 바깥세상의 분위기에는 아랑곳없이 별들도 추위에 떠는 깊은 겨울밤 실연의 쓰라림을 안고 방랑의 길을 떠나는 사나이의 심정을 형상한 슈베르트의 《안녕히 주무십시오》의 애잔한 선율이 울려나오고있었다. 이 노래를 연주할 때면 아버지는 두눈을 꼭 감은채 음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곤 하였다. 그런데 사나이가 달빛어린 싸늘한 대지에 눈물을 떨구며 떠나는 순간의 감정이 울려나오려는 그때 팽— 팽—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안도와 황해도 룽두지침은 만드는 방법이 간단하면 서도 독특한 진미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룽두지침을 만드는 데 돼지고기, 배추, 김치, 돼지 기름, 파, 마늘, 고추가루, 소금 등이 든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룽두에 산성물이 많은 김치를 섞으면 지짐이 한결 부드럽어진다. 룽두지침에는 이외에도 배추, 고사리 등을 섞어서 지져도 좋다. 상에 열 때는 초간장을 곁들인다. 흰쌀을 약 30%정도 섞어서 룽두지침을 만들면 더욱 맛이 좋다. 본사기자



유모야 아버지가 몇인가?

한 농부가 물건을 사려고 가게방으로 들어갔다. 가게방주인은 수관을 텅기가 농부에게 통조로 물었다. 《입자한데 아버지가 몇이나 있느냐?》 《나한테는 아버지가 셋입니다. 친아버지와 가시아버지, 양아버지 이렇게 셋이지요.》 농부는 대답하고나서 주인에게 되물었다. 《주인님은 아버지가 몇입니까?》 가게방주인은 멍쩍하여 대답을 못하였다. 그는 농부의 물음을 못 들은척하고 수관을 계속 텅기었다. 그 모양을 한참 바라보던 농부가 한탄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수관으로 계산할까요?》